

# '낭만이 평평' 내달 7일 여수밤바다 불꽃축제 개최

### 이순신광장·장군도 해상 일원...차별화된 불꽃과 다채로운 공연 선사



올해로 4회 째를 맞는 '여수밤바다 불꽃축제'가 내달 7일 이순신광장과 장군도 해상 일원에서 열린다.

여수시는 낭만 가득한 여수밤바다를 배경으로 차별화된 불꽃과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여수와 사랑에 빠지다!(Fall in love with Yeosu!)'라는 주제를 드라마틱하게 표현하고자 축제에 타이틀 크레인 불꽃과 동백꽃 모형 불꽃 등을 새롭게 도입한다.

이날 축제는 저녁 7시 이순신광장과 해양공원, 진두 물양장에서 아카펠라와 LED 난타 공연, 낭만 버스킹으로 막을 연다. 이어서 저녁 8시 10분경 이순신광장 주무대에서 내빈과 관람객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을 진행한다.

이번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불꽃쇼는 저녁 8시 30분부터 9시 10분까지 1, 2부로 나눠 40분간 펼쳐진다. 1부 불꽃은 15분간 4막에 걸쳐 사

랑에 빠질 수밖에 없는 아름다운 도시 여수를 표현한다. 2부 불꽃은 25분간 5막으로 사랑에 빠진 연인의 감정을 묘사한다.

현장에서는 캐리커, 볼케이노, 꽃다발, 오토라, 분수, UFO, LOVE 등 다양한 모양의 불꽃을 만날 수 있다. 컬러레이저, 특수조명, 불새, 음악, 내레이션 등은 불꽃에 입체감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무료 셔틀버스 11대를 운영하고, 차량 3800여 대를 수용할 수 있는 임시 주차장 11개소도 마련한다.

구역전권 시민과 관광객을 위해 소호 요트장에 대형 스크린 차량을 배치하고, SNS 현장 생중계도 진행한다.

여수경찰서, 여수해양경찰서, 여수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관람객 안전도 도모한다.

시 관계자는 "1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축제 준비에 만전을 다하고 있다"면서 "2019 여수밤바다 불꽃축제에서 잊지 못할 감동과 추억을 만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송기홍 기자

## 보성군, '제10회 어업인 한마음대회' 행사 성료

보성군에서는 지난 25일 보성회천 수산물위판장 앞 광장에서 김철우 보성군수를 비롯한 각급 어업관련 기관 단체장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0회 어업인 한마음대회가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행사는 '행복을 키워가는 바다, 미래를 꿈꾸는 바다'를 주제로 보성군 어촌계협의회(회장 김천수)가 주최하고 보성군, 고흥군수협 후원으로 어업인의 자긍심 고취와 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최되었다.

개회식에서는 보성군 수산업 발전 공로자에 대한 공로패, 감사패 수여식과 함께 2부 행사에서는 29개 어촌계 어업인 모두가 참여하는 노래자랑과 경품추첨 행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운영으로 참석자 모두가 신명나고 즐거운 한마당 자리를 진행되었다.

보성=인구일 기자

## 순천시 올해 상반기 도내 인구증가 '1위'

### 호남지방통계청 발표

2019년 상반기 순천시의 순유입 인구수가 전남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국내 인구 이동 동향'에 따르면 순천시는 올해 상반기 1144명의 인구가 순유입 됐으며, 전남 22개 시군 중에서 순유입 인구수 1위를 차지했다.

순천시 인구는 1995년 순천시와 승주군의 통합당시 25만여 명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7월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수는 28만735명이며, 외국인 수까지 포함하면 28만2823명에 이른다.

순천시의 인구증가에는 주거, 문화, 안전 등 도시 인프라 구축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과 함께 순천시가 타시군과 차별화된 인구 증가 정책을 추진해 온 성과로 풀이된다.

그동안 순천시는 순천아이 꿈 통장, 어린이집 무상 보육, 초등학생 100원 버스, 중학생 교복 무상 지원, 일하는 순천청년희망통장사업, 장년층 인생 2모작 지원 사업, 치매안심센터 등 생애주기별로 빈틈없는 인구정책을 추진해왔다.

또한 지난 7월 31일에 제정한 '순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에 따라 ▲순천 소재 대학교와 대학원에 재학 중인 전임 대학(원)생에게 최대 50만원 지급 ▲2인 이상 전입한 세대에게 이사용품구입비 10만원 지급 ▲전입자에게 1인당 스피커 20대를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허석 순천시장은 "누구나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여야 사람이 찾고오고 머무르고 살고 싶어 할 것"이라며 "시민의 편의와 행복을 최우선으로 모두가 편한 순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영광군, 칠산대교 추석 연휴 임시 개통

영광군 향화도와 무안군 도리포를 잇는 국도 77호선 칠산대교가 오는 12월 준공을 앞두고 추석 명절 연휴 기간인 9월 11일 13시부터 9월 15일 24시까지 주민 교통 편의를 위해 임시 개통된다.

칠산대교는 총사업비 1,617억 원이 투입돼 총길이 9.52km 중 교량은 1.82km, 폭 11.5m로 설계된 사장교로

2012년 9월에 착공하여 올해 말 개통 예정이다.

영광군 향화도와 무안군 도리포를 잇는 칠산대교가 개통되면 영광 염산(향화도)~무안 해제(도리포항)간 이동거리는 50km에서 2km로, 이동시간은 1시간이 단축되어 농수산 물류비용 절감과 주민 교통편의를 제공한다.

영광군은 지난 20일 염산면 옥실리



칠산대교 현장사무실에서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남도, 무안군, 영광경찰서 등 관계기관 30여 명과 함께 칠산대교 임시 개통에 따른 대책회의를 가졌다.

영광=서희권 기자

## 광양시, 노후 주택 옥내급수관 개량사업비 내년부터 지원

광양시는 지방상수도 공급구역내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노후 수도배관 개량사업비를 2020년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수용가의 옥내급수관이 노후하여 생활용수의 탁도와 수질이 음용에 부적합에도 경제적인 이유로 개량하지 못하는 세대에 대해 개량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 기준 25

년 경과한 전용면적 130㎡ 이하의 공동주택 또는 연면적 130㎡ 이하의 단독주택 등이다.

지원규모는 면적에 따라 단독주택은 총공사비의 50~70%, 공동주택은 공동배관 50~90%, 가정배관 50~70%를 각각 지원한다.

내년도 사업시행을 위한 사전 수요조사를 8월말까지 실시하고 있으며, 지원을 받고 싶은 수용가는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사전 수요 조사를 토대로 보조사업 물량을 면밀히 검토한 후 2020년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한편, 2019년에는 전라남도 도비 보조 '취약계층 옥내급수관 설치지원' 사업을 통해 도비 1억1천3백만 원을 확보해 생계가 어려운 취약계층 225세대에 대한 개량지원을 추진 중이다.

광양=김승호 기자



## 담양군, '수공예 교육과정' 수강생 모집

담양군이 수공예 문화 확산을 위한 '2019년 제2기 수공예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내달 3일부터 3개월간 총 24회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1기에 이어 야생화 들꽃 자수 과정으로, 광복을 이용한 기본 바느질법과 야생화 수놓기 등을 교육하며,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담양군 공예센터(장민

각) 2층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과정은 초급반 10명, 중급반 10명으로 개별 운영하며, 초급반은 매주 화요일, 중급반은 매주 목요일에 교육을 진행한다.

내달 2일까지 선착순 20명을 모집하며 수강에 관심이 있는 담양군민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재료비를 제외한 수강료는 무료다.

담양=박종영 기자

## 내일부터 '화순사랑상품권' 판매 시작

화순군이 28일부터 화순사랑상품권 판매를 시작한다. 화순사랑상품권은 지역 상권 활성화와 지역 자급의 역의 유통방지를 위해 발행한다.

군은 판매량 제고와 유통 활성화를 위해 오는 12월 31까지 10% 할인 가격으로 판매할 계획이다. 상품권은 5

천 원권과 1만 원권 2종류다. 상품권은 현금으로만 살 수 있다.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구매할 수 없고, 법인·단체·가맹점주는 할인 혜택이 없다.

상품권 구매 금액에 제한은 없다.

화순=박순철 기자

## 고흥군, 관광객 집중이용 외식업소 친절교육 실시

고흥군은 최근 도양읍사무소에서 관광객 집중이용 외식업소 대표자, 외식업주부 운영위원, 해당 외식업소 친절지도 공무원 등 97명을 대상으로 다시 찾고 싶은 고흥, 친절할 고흥 이미지 향상을 위한 맞춤형 친절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친절교육은 금년 말 고흥-여수간 연륙·연도교 개통, 내년 고흥방문의 해를 맞아 약 250만명 정도가 고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들 관광객이 주로 찾게 될 외식업소 40개소를 선정 관광객 집중이용 외식업소로 지정하고, 친절하고 맛있는 음식과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시 찾고 싶은 마음과 감동을 줄 수 있는 고흥관광이 되기 위함이다.

송귀근 군수는 "음식점이 갖추어야 할 기본은 친절과 청결"이라고 말하고, "특히 외식업 영업주가 모범을 보이고 실천하여 손님과 공감하는 식단이 되도록 하고 종업원 친절교육에도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군에 따르면 이번 친절교육은 '관광객 집중이용 외식업소' 40개소에 대한 친절지도 전담공무원 지정, 영업주와 함께 참석하였으며, 앞으로 이들 업소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우수한 업소에 대해 표창과 함께 위생용품 지급 및 조리장 화장실 등 시설환경 개선사업도 적극 지원 할 계획이다.

고흥=한윤섭 기자

www.jepa.kr

###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를 운영했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도약합니다!

**중소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행복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기업들의 매출증대가 고용창출을 낳는 선순환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입니다.**

주소 | 전남 무안군 심항읍 오룡3길 2(전남도청 옆)

- 무료법률상담**
  - 무당해고·임금체불 등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 상담 중대 사안 관계기관 진정
  - 구제신청 지원 및 의견제출(노동사·자문변호사)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상담 무스 운영
- 취약근로자 권익보호·지원**
  - 근로조건 열악사업장 근로자 상담 및 법률지원
  -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활동
  - 일용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진정 상담 및 지원
- 최저임금·비정규직 차별신고센터 운영**
  - 중소기업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사례 접수
  -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을 통해 차별적 요소 확인 및 시정 요청, 행정기관 법률구제 신청을 위한 시민권성 지원 및 법률 자문
- 노동법률교육**
  - 근로자 및 사용자 대상 노동법 및 노사관계관련 교육 실시
  -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개선 및 직법한 인사관리방안 안내